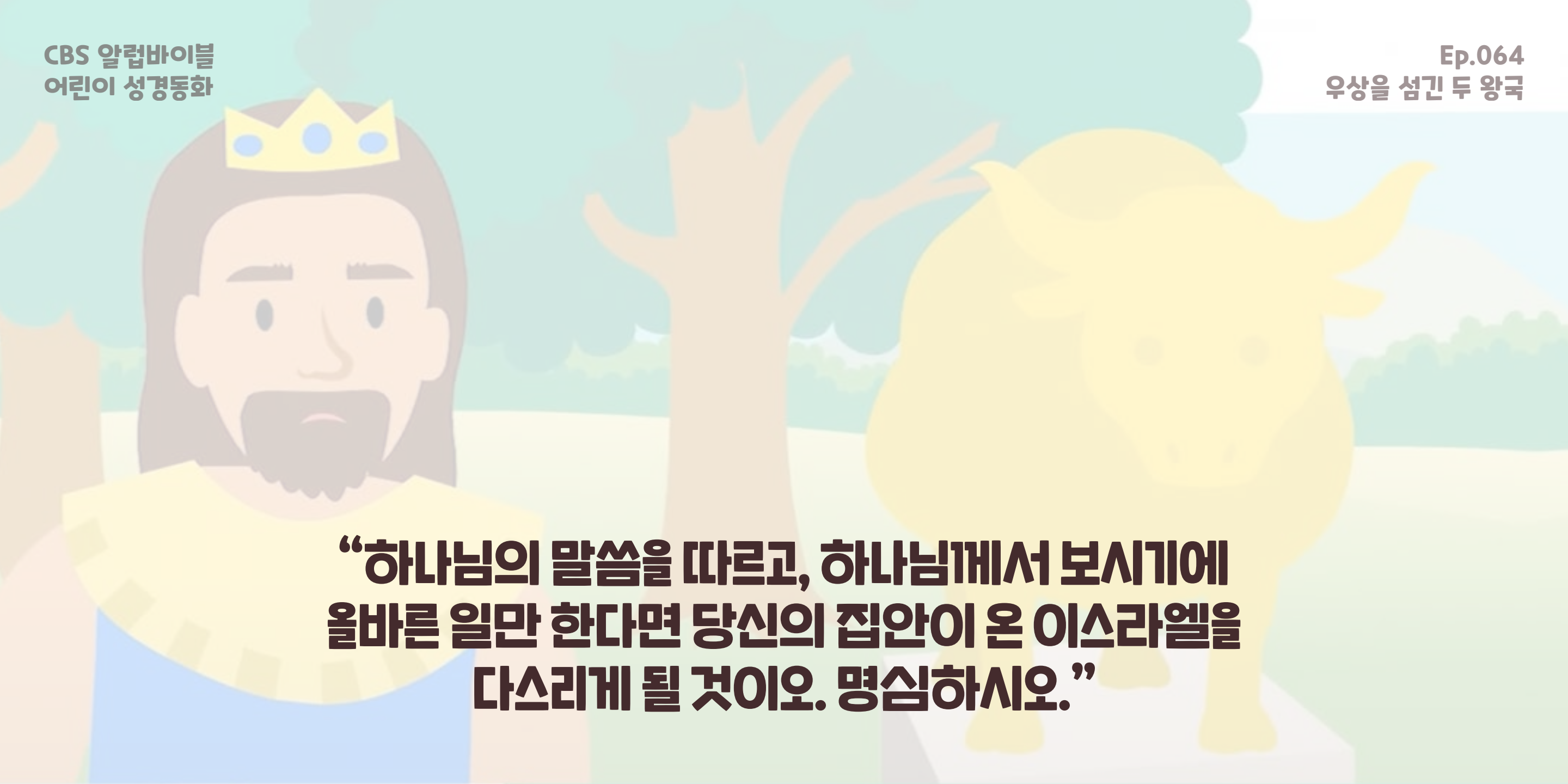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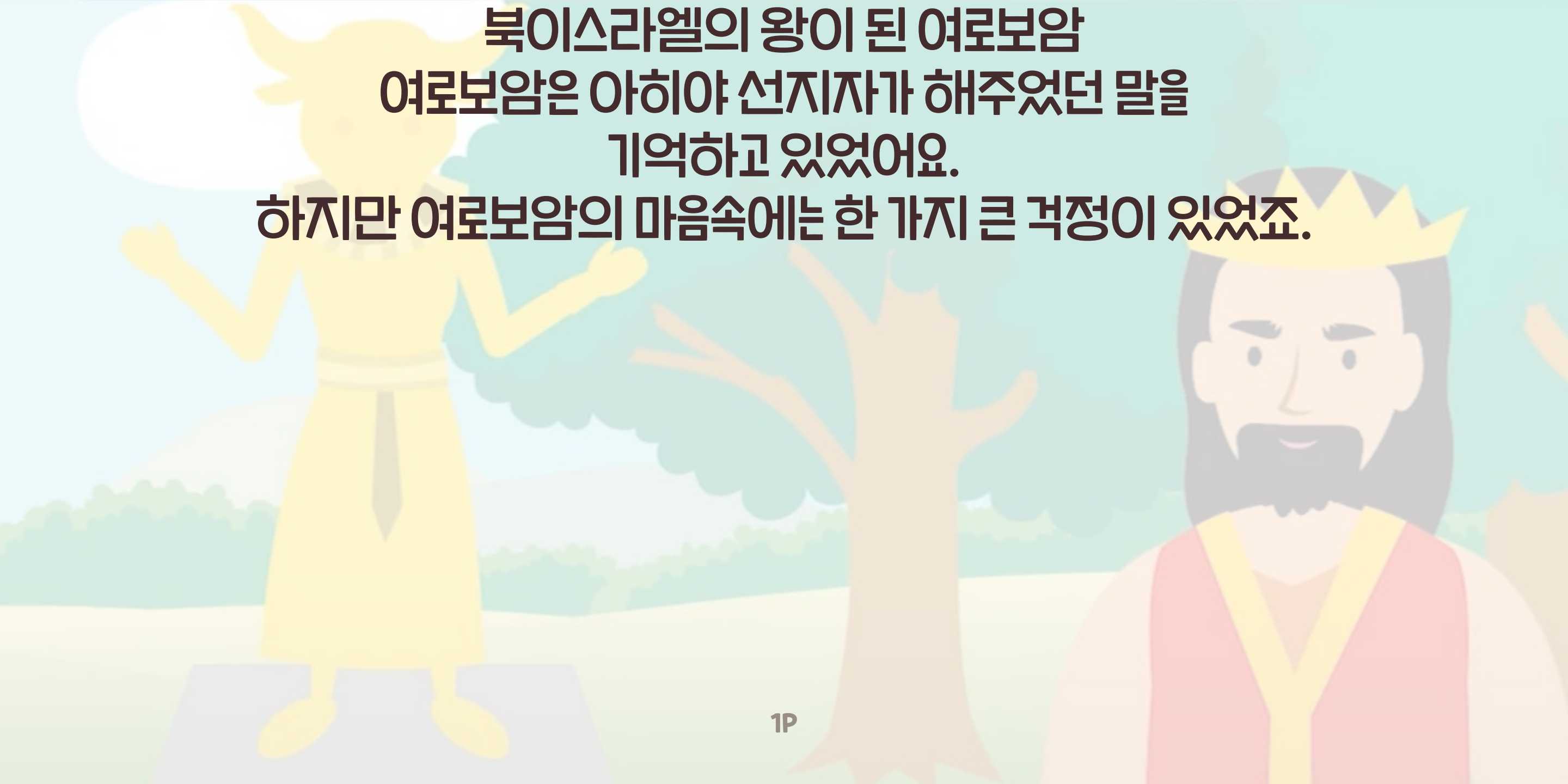
Ep.064

우상을 섬긴 두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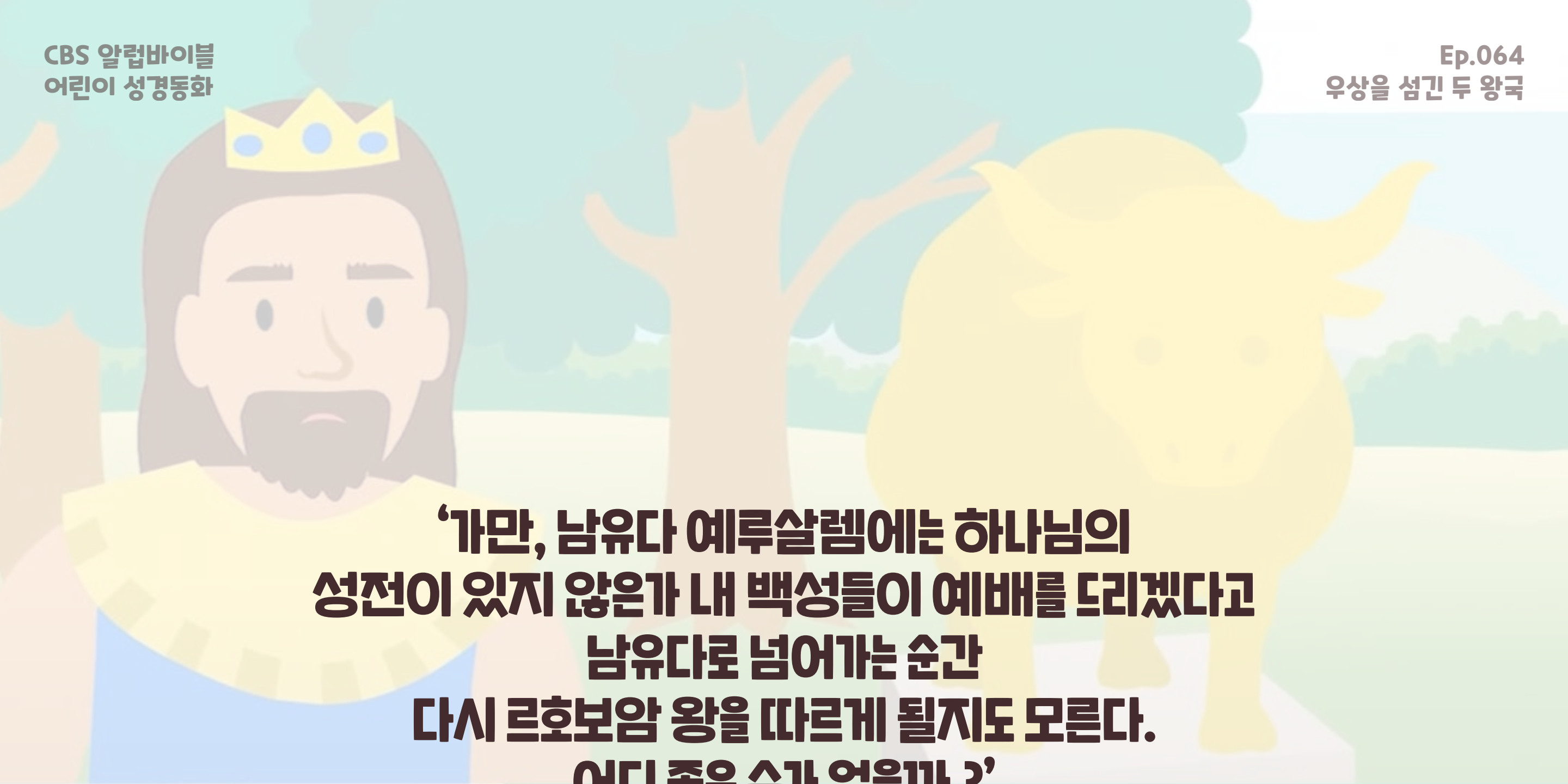
(열왕기상 12:25~15:8,
역대하 12장~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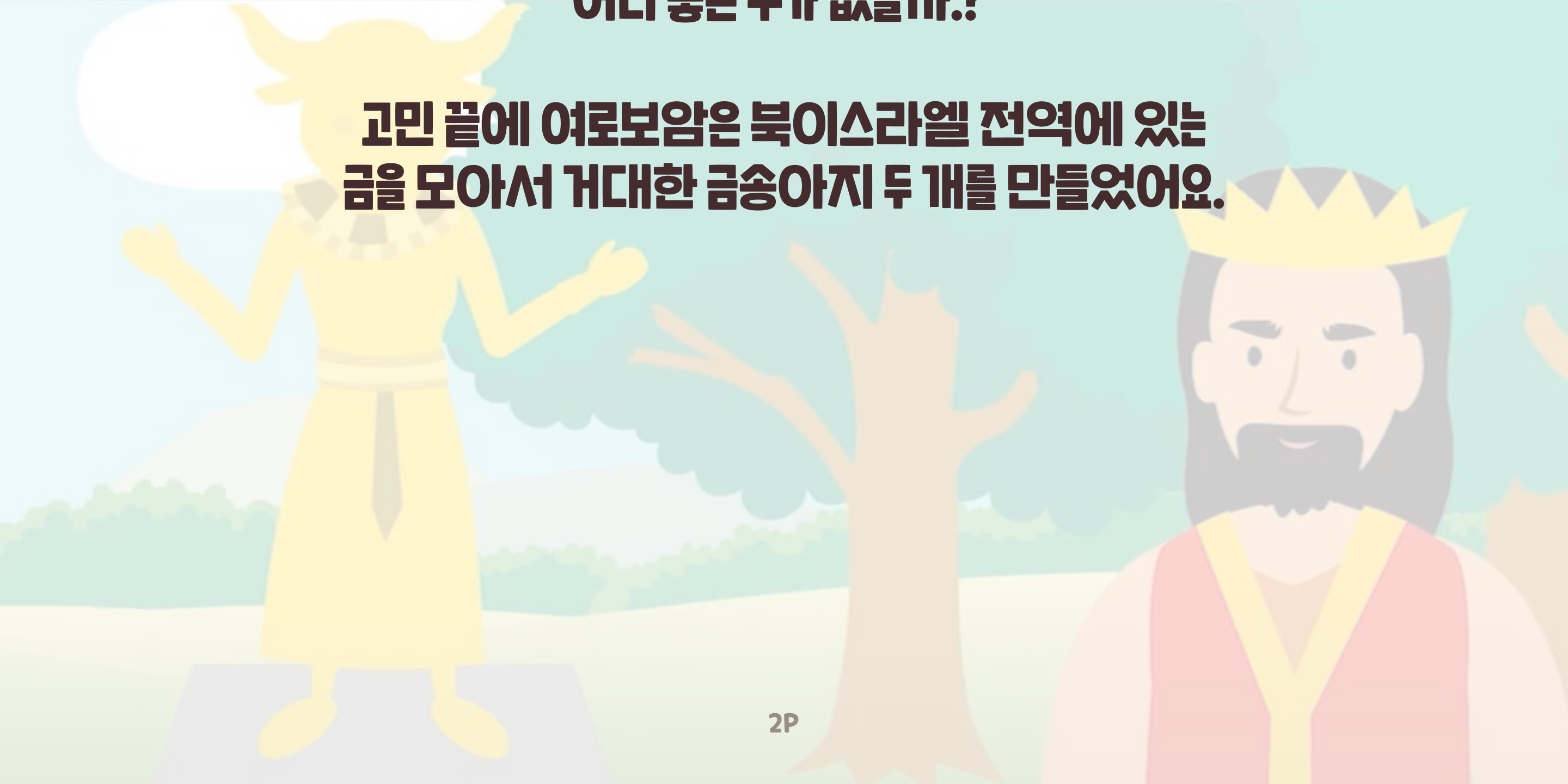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한다면 당신의 집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명심하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죠.**



**‘가만,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은가 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남유다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르호보암 왕을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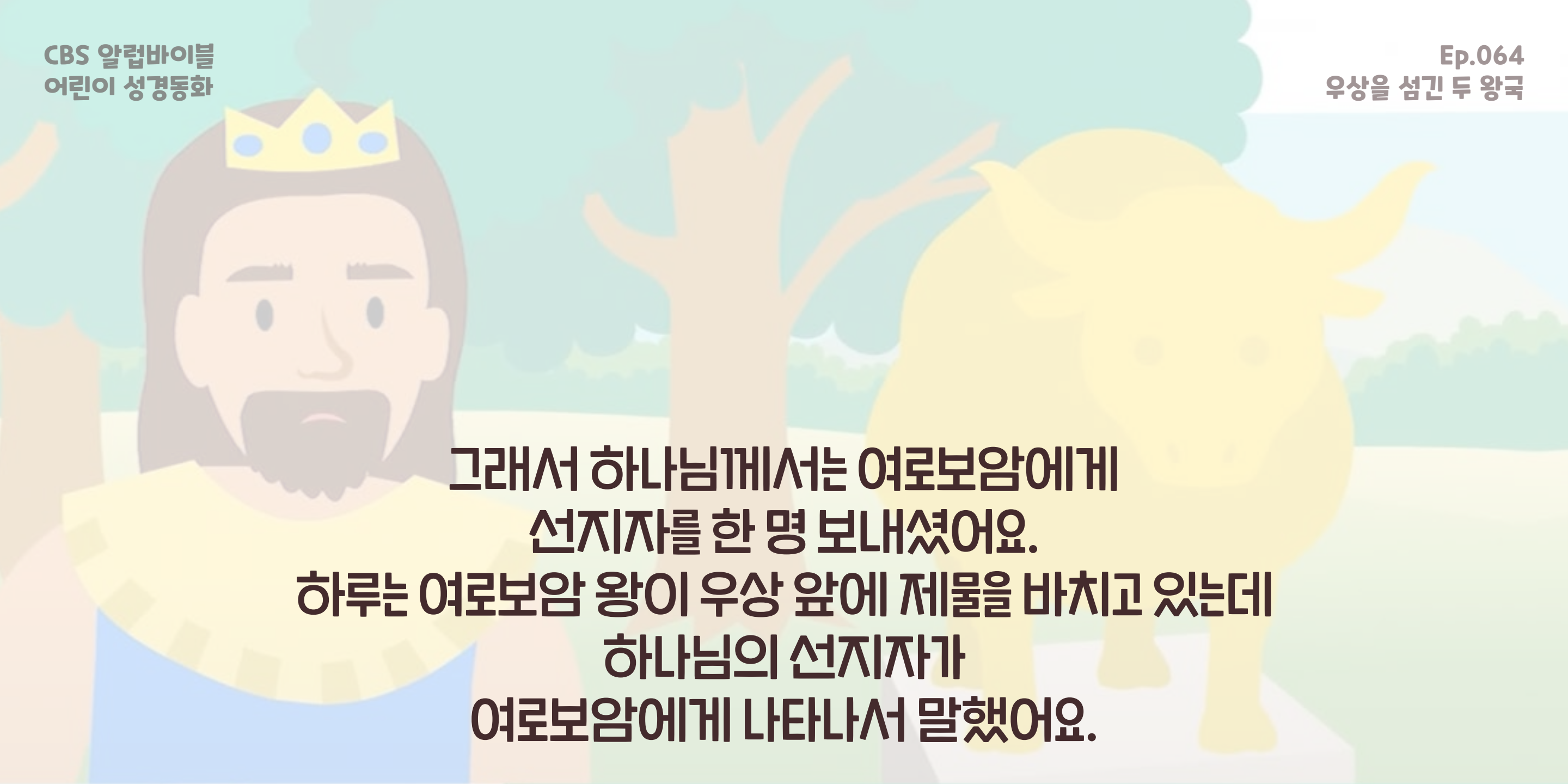


**고민 끝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금을 모아서 거대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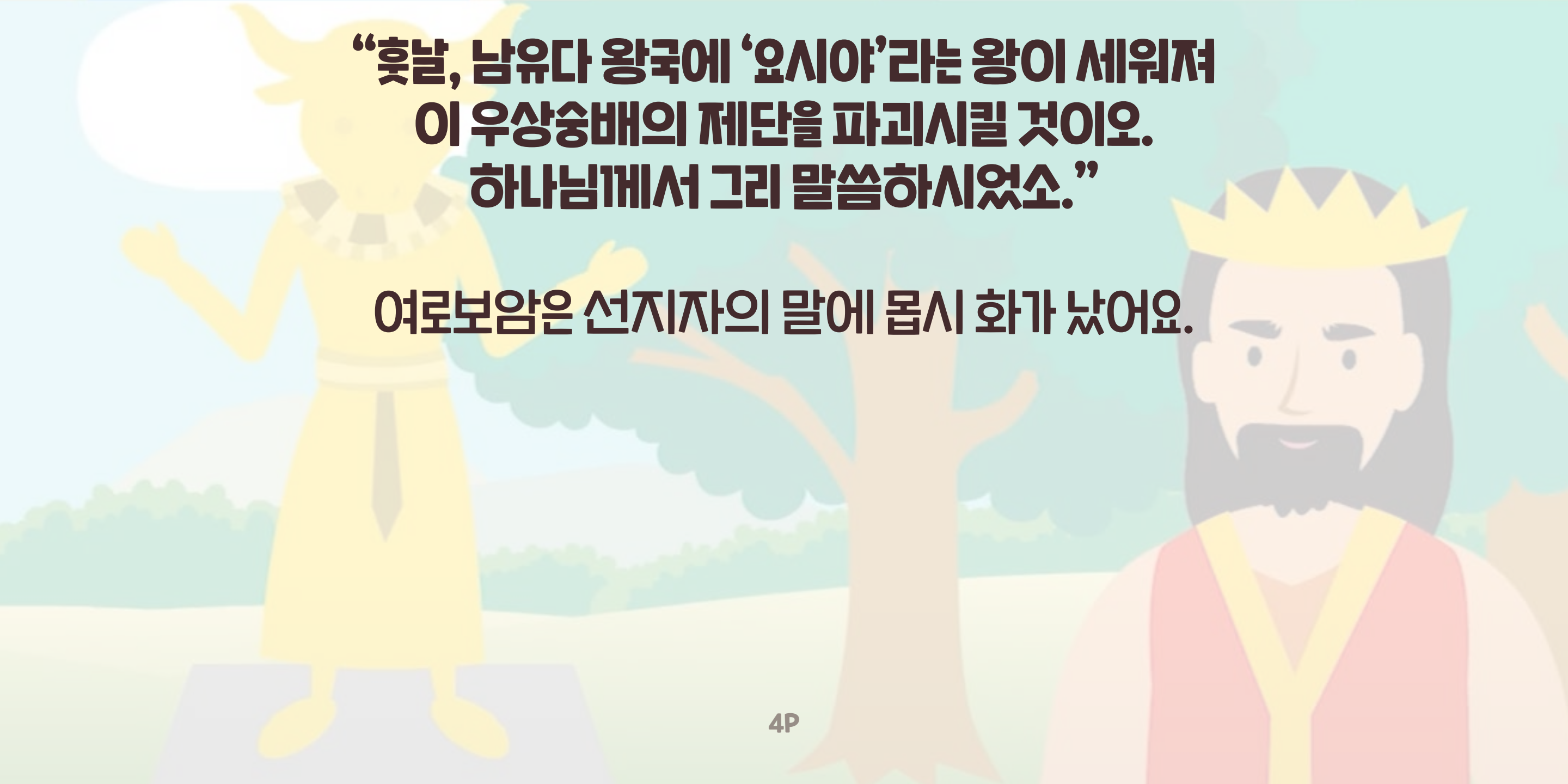
**“들거라,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내가 친히 ‘벨엘’과 ‘단’, 두 지역에
성전을 지었느니라.**

**이 금송아지상이 너희의 신과 마찬가지로이니
백성들 각자 편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여로보암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셨어요.
하루는 여로보암 왕이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훗날, 남유다 왕국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져
이 우상숭배의 제단을 파괴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었소.”**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에 몹시 화가 났어요.


**“뭐라? 저자가 겁도 없이 지껄이는구나.
저자를 당장 잡아라!”**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어 선지자를 가리키는 순간
왕의 팔이 갑자기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팔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팔은 단단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우상을 모신 제단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고
제단은 금세 시커먼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이, 이보시오 선지자!
내 팔을 좀 고쳐주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내 팔 좀 돌려주시오~ 돌려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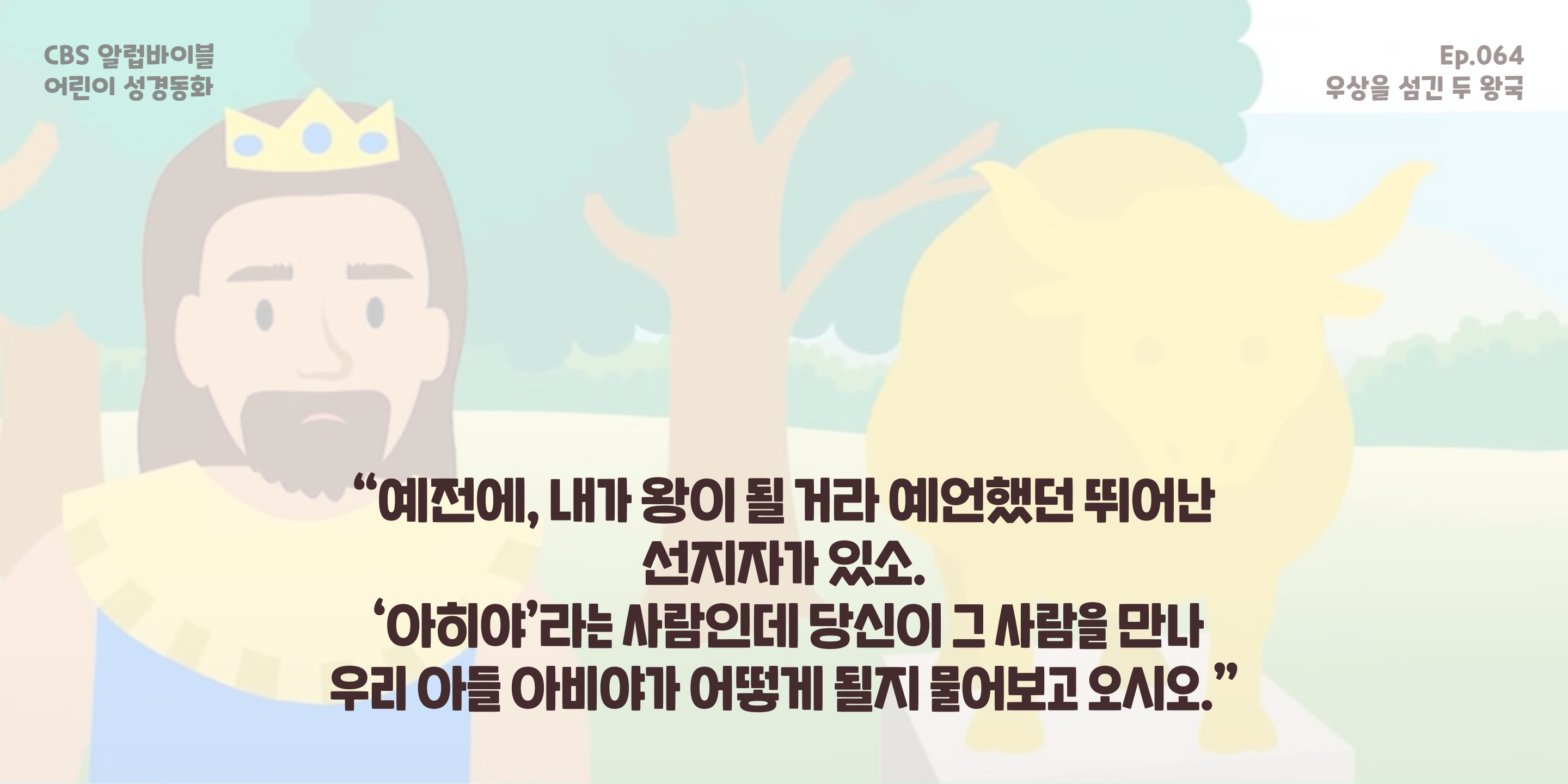


겁에 질린 여로보암 왕을 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제야 왕의 팔이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여로보암은 변하지 않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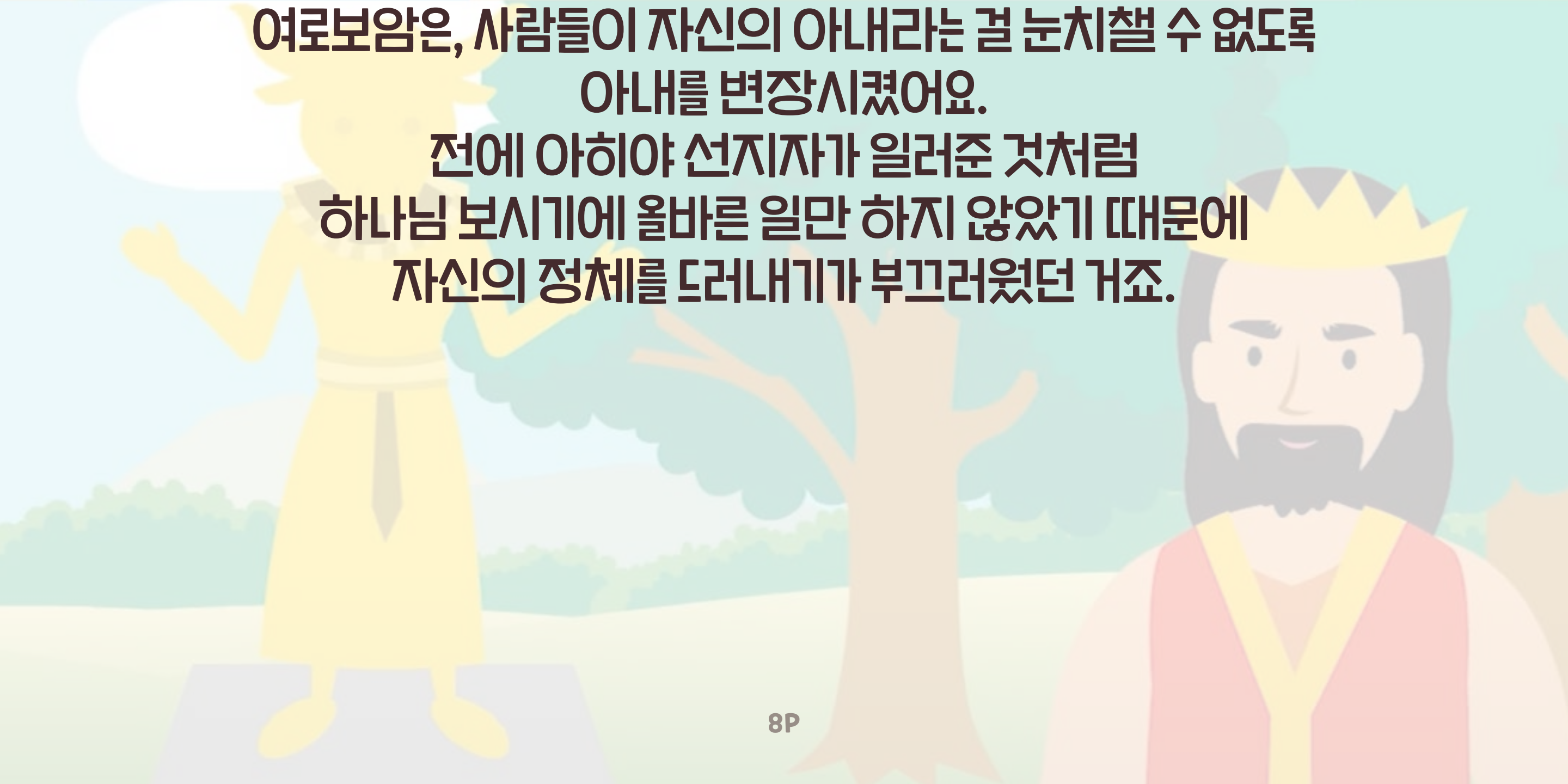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돕게 했으니깐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어요.
모두가 그를 걱정했고 좋다는 약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여로보암 왕은 궁리 끝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내가 왕이 될 거라 예언했던 뛰어난
선지자가 있소.
‘아히야’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오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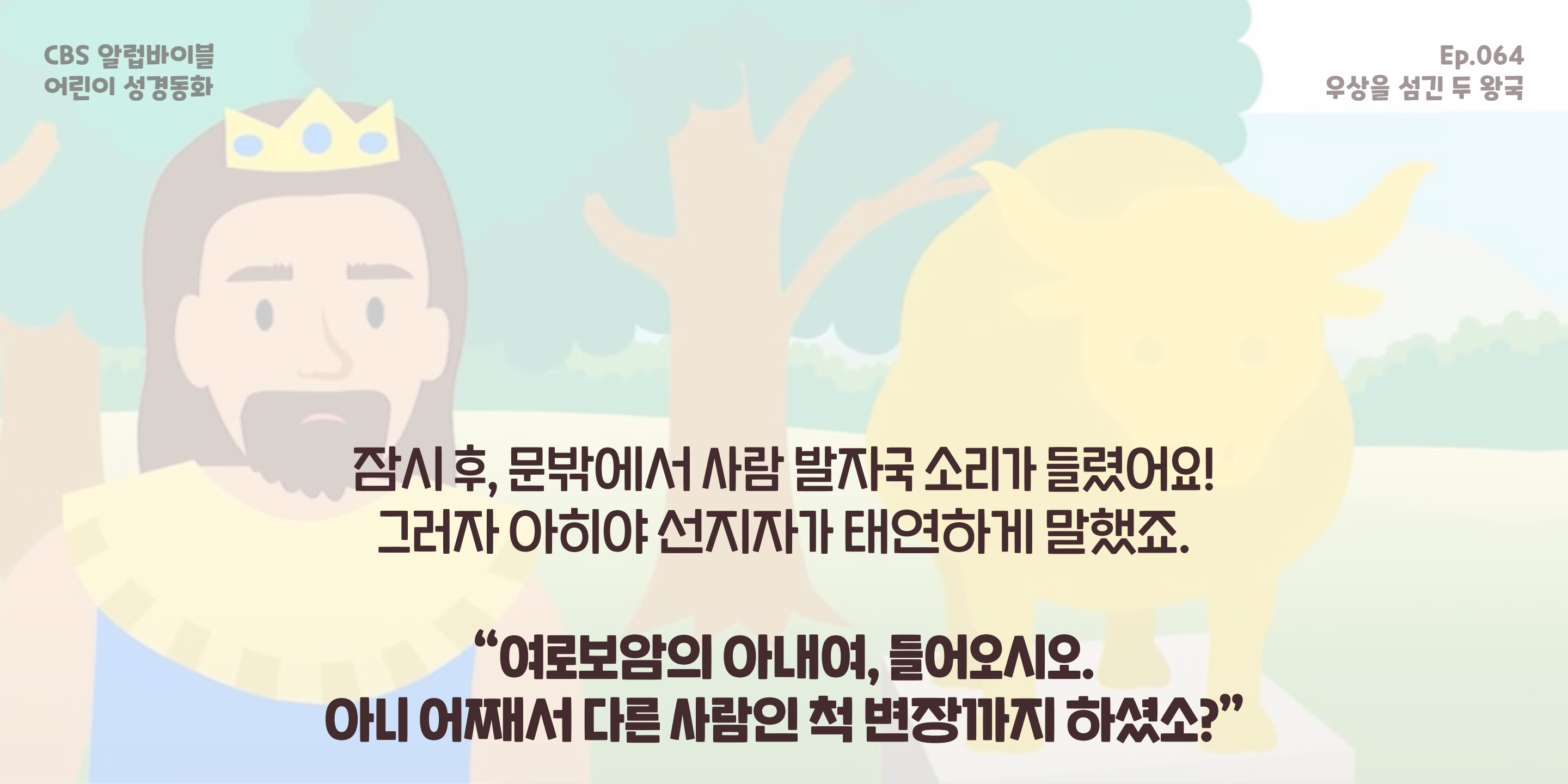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라는 걸 눈치챌 수 없도록
아내를 변장시켰어요.
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일러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너무 늙어 버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히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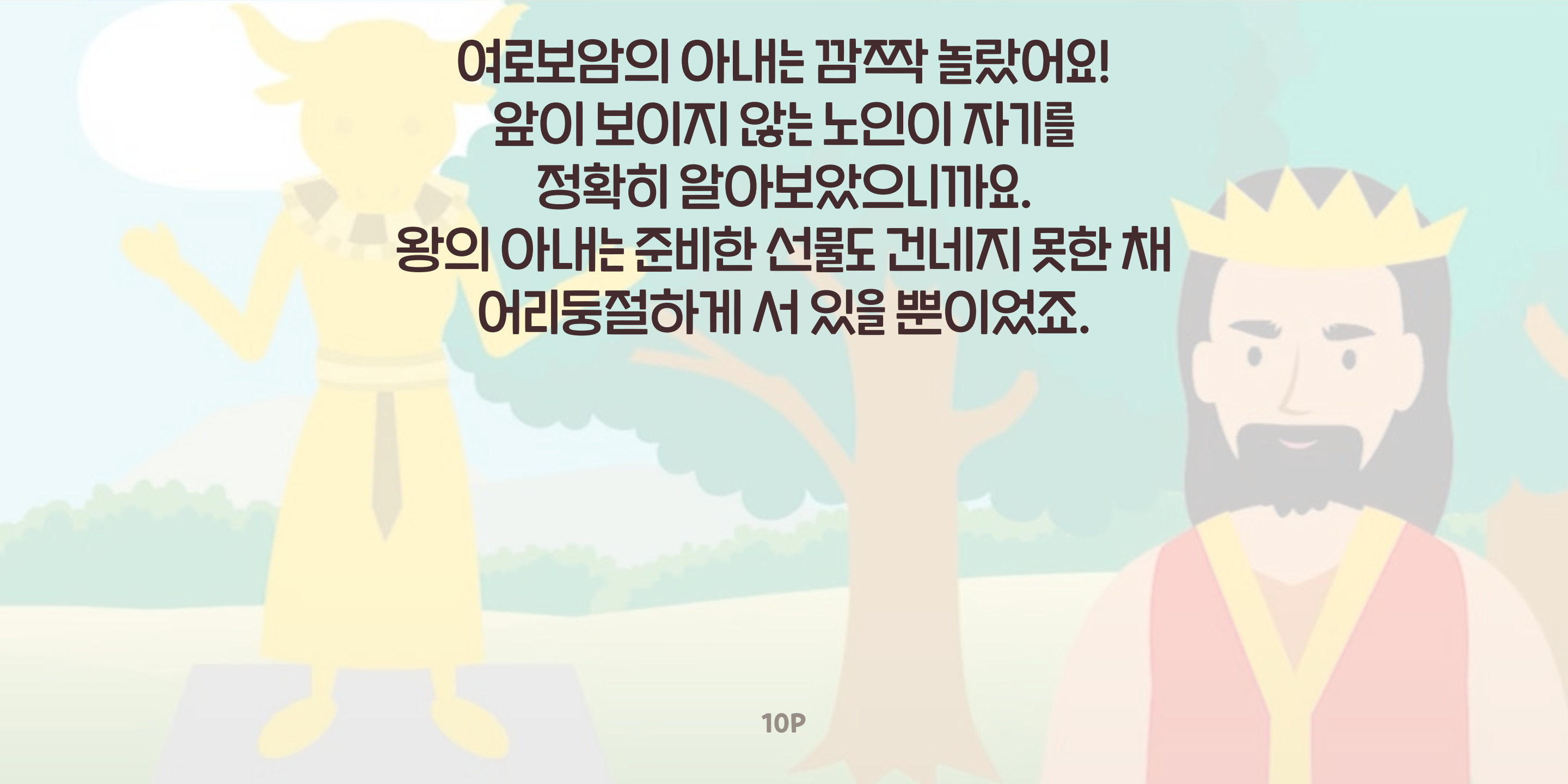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오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셨어요요.




잠시 후, 문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아히야 선지자가 태연하게 말했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아니 어째서 다른 사람의 척 변장까지 하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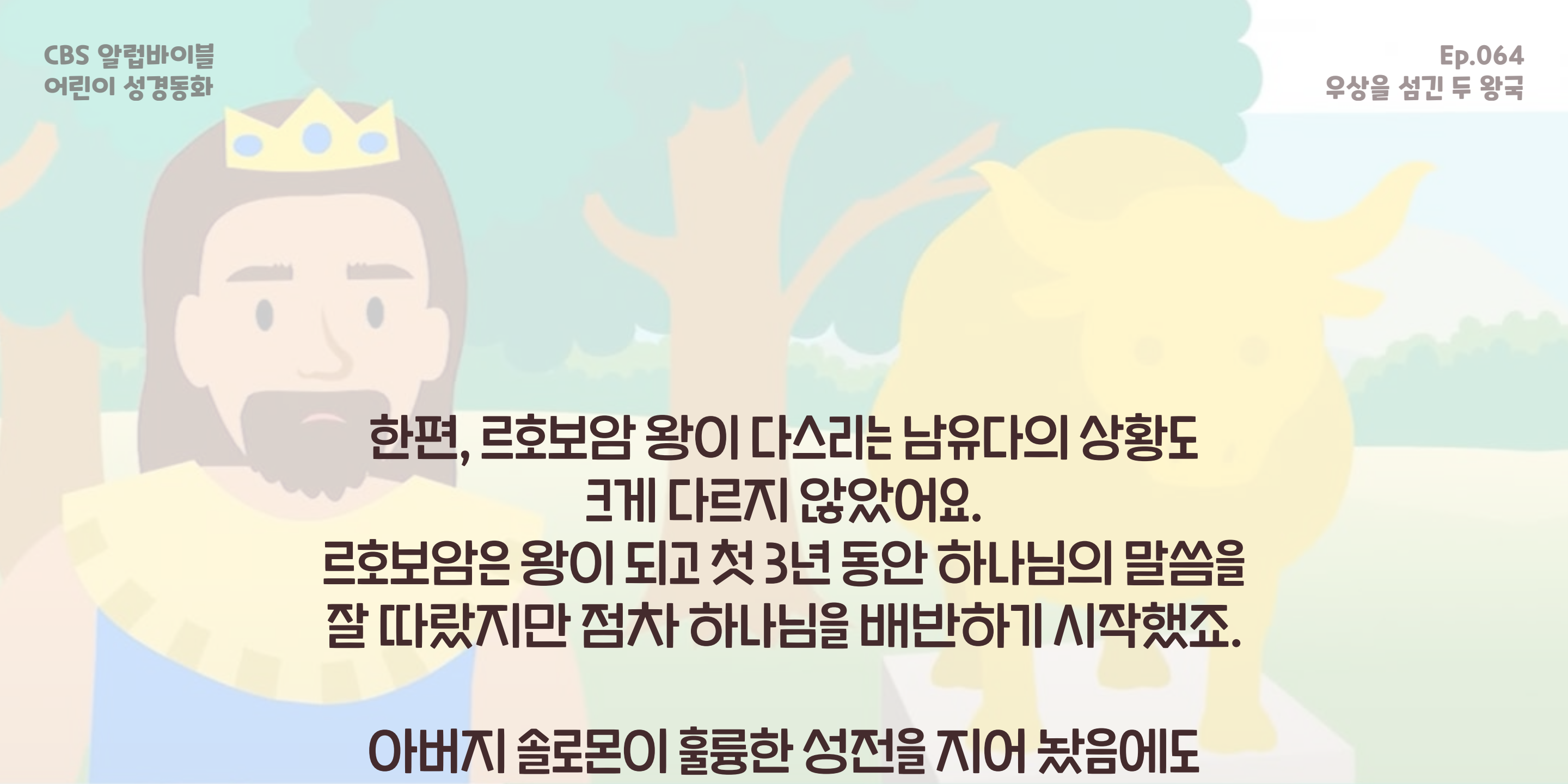
여로보암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자기를
정확히 알아보았으니가요.
왕의 아내는 준비한 선물도 건네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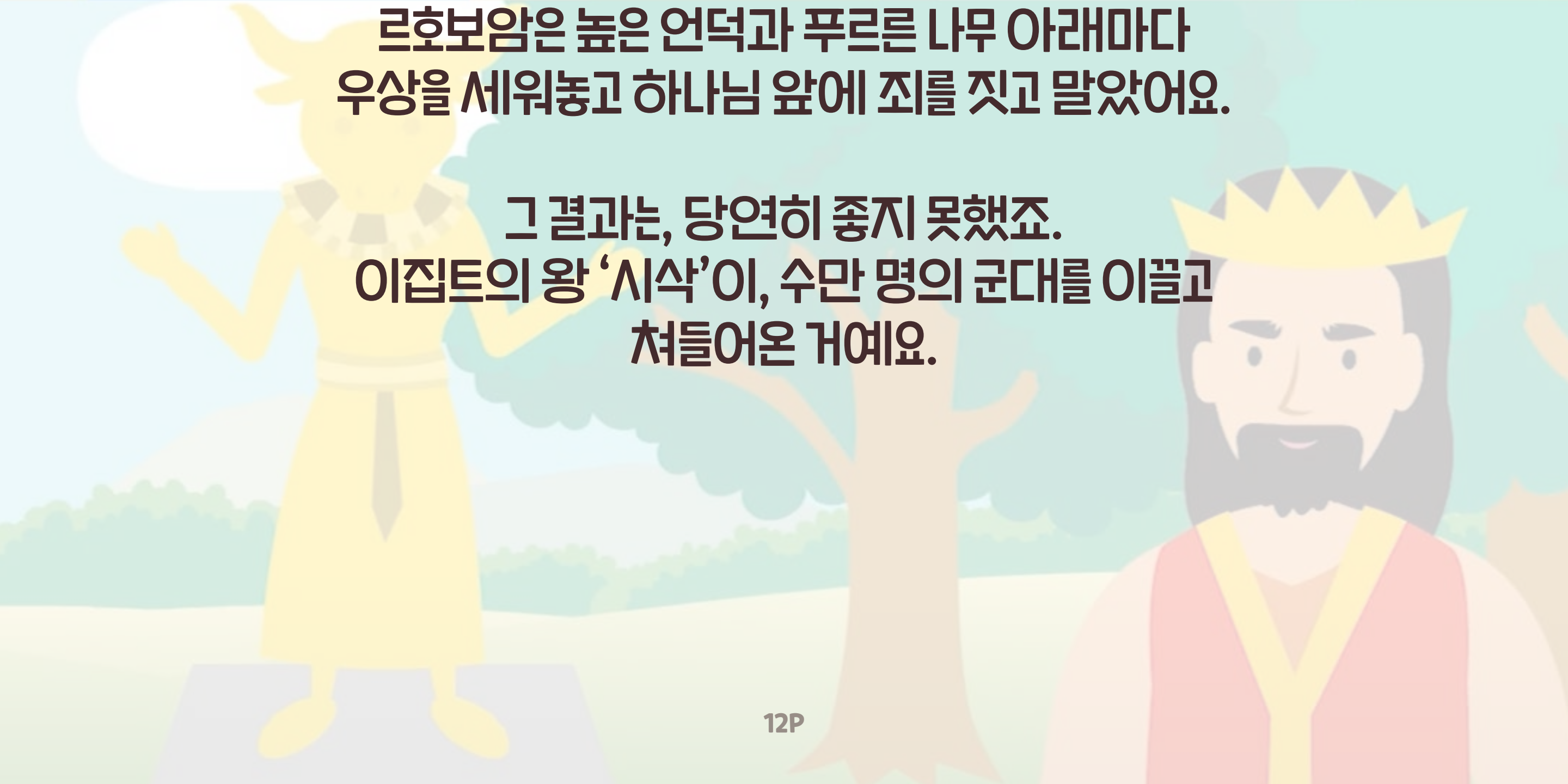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했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큰 벌을 주실 것이니
그대가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된 거죠.**



한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첫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점차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솔로몬이 훌륭한 성전을 지어 뒀음에도
르호보암은 높은 언덕과 푸르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했죠.
이집트의 왕 ‘시삭’이,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배앓아 올 것이다!
속도를 늦추지 말고 진격하라! 킬킬킬!”**


**그들은 솔로몬왕이 쓰던 금 방패를 포함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값비싼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이 가가스로 목숨만은 건졌지만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금방패 대신 초라한 놋방패를 들어야만 했죠.**

**과거 솔로몬왕 때의 화려했던 도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과 달리,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대대손손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놓치게 되었죠.



앞으로 이제 두 왕국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한 분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양들을 돌보았듯
그분은 우리 모두를 ‘어린 양’처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